



# 지역 소식

■ 구원 사업을 서두르는 성도들



## 작지만 강한 평의회 —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

### 대구 스테이크 중리 와드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는 감독단, 청남, 청녀, 청남 및 청녀 회장 등으로 구성된 작은 평의회다. 일반적으로 매월 열리며, 와드 청소년들의 필요 사항을 해결하고, 청소년들이 교회 표준에 따라 생활하도록 도우며, 교회 모임과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침서 2권: 교회 관리, 18. 교회 모임 참조

**안** 식일 정규 모임이 모두 끝난 뒤, 중리 와드 청소년과 청남 및 청녀 회장, 감독단이 공과방에 모였다. “오늘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의 주제는 ‘개인 경전 읽기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월계반의 정지희 자매의 사회에 따라, 개회 찬송과 기도로 이달의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 모임**이 시작되었다.

#### 개별 청소년의 필요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중리 와드의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 모임은 작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전에도 청소년 모임 준비를 위해 청소년과 청남 및 청녀 회장단, 감독단이 모여 위원회 모임을 해 왔지만, 이날 주제인 ‘개인 경전 읽기를 잘하는 방법’처럼 개별 청소년의 영적이고 실질적인 필요 사항에 새롭게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교사 정원희의 김지태 형제는, “예전에는 청소년 대회 같은 모임을 준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요즘은 우리 필요 사항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개인의 신앙을 더 잘 키우고 더 잘 가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한다.

####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지도자로 훈련되고

이날 모임에 참여한 월계반 오지현 자매는, “보통 와드의 일들을 어른들끼리 상의하시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이 주체가 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청소년들은 이날 위원회 모임에서 개인 경전 읽기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스스로 의견을 냈다. 각자 경전을 읽을 때 어려운 점을 솔직하게 나누고, 효과적인 경전 읽기의 기본적인 원리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각자 경전 읽기에 대한 개인적인 목표를 세웠고 몇몇 청소년이 자신의 목표를 발표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서로 의견을 말하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사진: 김복단 청소년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중리 와드 청소년들과 청년 회장

### 경험과 간증을 나누며 서로 강화됨

한 청남이, “그런데요, 저는 경전을 왜 읽어야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솔직한 마음을 나눠 준 것 같았지만, 몇몇 참석자들은 당황했고, 모임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제사 정원회의 김지현 형제는 이 순간을 자신의 경험과 간증을 나누는 기회로 만들었다.

“한동안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종교 때문에 크게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저는 교리와 성약을 읽으면서, “... 아무 교회와도 대적하여 다투지 말라.(교리와 성약 18:20)”는 말씀을 읽게 됐고, 그게 제게 좋은 해결책이 되었어요. 경전을 읽다 보면 이런 도움을 받게 되더라고요. 궁금증을 풀어주고 내게 꼭 필요한 지식도 얻게 돼요.” 참석자들이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덩달아 생각에 잠겼다. 김 형제의 간증이 위원회 모임에 주님의 영을 초대했다.

질문을 던진 청남에게, 이번에는 정지희 자매가 담대히 권유했다. “경전이 왜 좋은지, 왜 읽어야 하는지 스스로 알아볼 기회가 아직 없었던 것 같네요. 본인이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이번 주에 그 이유를 스스로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밤에 모로나이서 10장 4절과 5절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 신뢰 관계를 쌓으며, 함께 발전함

위원회 모임은 중리 와드의 김남주 감독의 말씀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는 참여한 모든 청소년들을 칭찬하고 격려했고, 영적인 생각과 간증도 나누었다.

모임 중 때때로 청소년 사이에 비판이나 논쟁이 나타나는데, 청남 및 청년 회장단과 감독단이 잠시 개입하여 이를 부드럽게 조정하곤 한다. 중리 와드 청소년들은 지도자들의 개입에 풀이 죽거나 기분이 상하기보다 조언을 흔쾌히 수용하고 다시금 토론에 몰두한다.

이런 모습에서 청소년들이 지도자를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데, 지도자들은 “평소에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좋은 신뢰 관계를 쌓으려 노력해 왔습니다.”라고 말한다. 장미반 정지연 자매와 김수지 자매도 “지도자와 청소년들 모두 다 친한 사이라서, 위원회 모임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점은 딱히 없어요.”라고 전한다.

위원회 모임을 통해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은 더욱 더 돈독한 신뢰 관계를 쌓는다. 또한 실제로 고민에 대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 월계반의 김현지 자매는 “청소년들은 누구나 고민이 있어요. 해결 방안을 다양하게 나누니까 좋아요.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는 고민 해결소예요. 다른 와드 청소년들도 하면 좋겠어요.”라고 전한다.

청소년과 지도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중리 와드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 모임이 발전하고 지속될 수 있었다. 이 모임을 통해 청소년들은 미래의 지도자로서 훈련되며, 성인이 되어 참여하게 될 와드 평의회 모임에서도 그들의 빛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제사 정원회의 김지현 형제는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를 ‘발전소’라고 표현한다. “발전할 기회를 주니까요. 미처 몰랐던 부족한 점을 깨닫게 해 주고, 발전할 방법을 찾게 해주요.” ■



## 폴코너 박사 한국 방문기

한국 종교학계에서 종파를 초월한 종교 간 협력을 외치다

**브**리검 영 대학교 철학과 교수, 제임스 이 폴코너 박사(Dr. James E. Faulconer)가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과 깊은 인연을 가진 폴코너 박사는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대구와 부산에서 3년간 생활했으며, 1962년에 미국에서 개종한 뒤 1967년에는 전임 선교사로서 부름받아 한국에서 2년 반가량 봉사했다. 그는 ‘박근호’라는 한국 이름도 가지고 있다. 그의 이번 방문은 한국종교학회의 ‘2015년 춘계 한국종교학대회’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5월 22일부터 1박 2일 간 연세대학교(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이 대회는 한국종교학회가 주최하였으며, 게타 마사코 일본종교학회 회장을 비롯한 해외 종교학계 인사 8명과 한국 종교학회 종교학자 2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학술 대회였다. 폴코너 박사뿐만 아니라 영동 스테이크의 김도균, 박상기 형제도 학계 인사로서 특별 세션 및 분과 발표에서 각각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 첫날, 폴코너 박사는 전체 주제 발표자로서 ‘물몬교와 다른 종교와의 만남’을 주제로 강연했다.

“... 다른 종교들과 물몬이즘 사이의 공통점은 토론과 존중의 장을 열어 줍니다. ... 신앙개조라고 불리는 믿음을 규정하는 조항들 중에서 열한 번째 조항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을 허용한다.’ 아마도 우리는 물몬의 타 종교에 대한 개방성의 시초를, 교회 초창기에 작성된 이 성명서의 상호 존중에 관한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가족 역사, 영원한 진보, 봉사 등 유교 및 불교와 물몬이즘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면서, 종교 간 공통점이 교류의 기회로 연결되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물몬이즘이 가진 개방성, 상호 존중성이 토론과 존중의 장을 열어갈 근간이 된다고 말했다. 지역 칠십인 구승훈 장로는 폴코너 박사의 발표에 대해, “세상에 당당히 복음을 알리면서도 친절하고 화합하는 태도로 발표했다. 그의 연구와 모든 발표에는 그러한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종교학회장인 서강대 김재영 교수 또한 “대단히 훌륭했다”며 찬사를 보냈고, 27일에 폴코너 박사와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와 신앙 생활에 대해 따로 대담 시간을 갖고, 종파를 초월한 종교 간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두 학자의 만남과 폴코너 박사의 발표는 주요 언론사들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26일 서강대 신학대학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등, 폴코너 박사는 다양한 종교 및 학술적 교류에 참여했다. 그의 이번 한국 방문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한 이해가 낮은 한국 종교학계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으며, 교회의 원리와 조직,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대한 종교학자들의 이해를 크게 넓혔다. ■

## 한국 최초의 선교사들에게 선교부 회장이 보낸

# 최초의 편지

1956년 4월 20일, 북극동 선교부에서 보낸 두 선교사가 도쿄를 떠나 서울에 도착했다. 그 직후 앤드리스 선교부 회장이 그 두 선교사에게 최초로 보낸 편지를 살펴봄으로써 당시 상황을 상상해본다.



사진: 1956년 9월, 한국에서 선교사가 준 첫 번째 침례, 파웰 장로에 의해 침례식이 집행되었다.



기고: 김대연 형제.

지난 1년간 한국교회역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봉사하던 구승훈 형제가 지역철신인으로 부름받음에 따라, 김대연 형제가 2015년 6월 1일부터 그 부름을 받았다.

1963년에 경기도 평택에서 출생하여 1980년에 개종한 김대연 형제는, 세미나리 교회사 수업 도중 한국 교회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후 오랫동안 다양한 사료를 수집하고 탐구해 왔다.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1989년 대전 선교부에서 봉사한 뒤, 이윤화 자매와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었다. 김 형제는 스테이크 회장단 및 종교 교육원 자원 교사로 봉사했으며, 현재 천안 와드 복음교리반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경전의 번역과 50년사(미출판) 저술에 참여한 바 있다.

1956년 5월 16일

드디어 장로님에게서 소식을 들을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장로님의 5월 2일 자 편지가 이곳 선교 본부에 5월 12일에 도착했습니다. ... 한국 도착 후 장로님의 활동에 대한 보고는 아주 흥미로웠고, 장로님이 이룬 진전이 반갑기만 합니다. 학교 건물을 이용해 주일학교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

장로님이 요청한 모든 장비와 요청하지 않은 일부 품목을 일주일 전에 그로브 형제를 통해 보냈습니다. ... 여러분이 중고 자전거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며칠 내로 28인치 최상품으로 네 대의 새 자전거를 보내려고 합니다. 해외로 보내기 때문에 대당 12,000엔의 특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후기 성도 군인들이 낸 선교사 기금을 이용해 이 자전거를 사려고 하니 그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APO(역자주: 미군 우편)를 통해 보내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분해하여 보내니 받으면 다시 조립해야 합니다. 6월 1일을 전후로 2명의 선교사를 더 보낼 계획이 있어 자전거 4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 대학생이 보낸 편지를 동봉합니다. 상황을 봐서 이 젊은이를 찾아가 빛과 진리의 길을 가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

해롤드 비 리 장로가 1954년에 방문했을 때 부산 지부의 김도필 자매에게서 교회 음악 몇 가지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장로님이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김 자매는 지금 서울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김호직 박사에게 편지를 써서 33 1/3 재생기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구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니다. 제가 리 장로님께 그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태버나를 합창단 레코드 몇 장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니다. 문제는 이 레코드를 재생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있다면, 이 레코드를 김도필 자매에게 보내려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산 방문에 대한 보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 이에 대해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부산의 상황이 서울보다는 더 열악하다는 제 의견에 여러분도 동의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울여름이 다 가기 전에 우리가 부산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튼 장로, 또 김 (박사), 그로브 형제, 가드너 형제와 한국에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제 안부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필요한 일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길 빕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폴 시 앤드리스 선교부 회장 ■

#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지난달 지역 소식에 게재된 '침례의 물가에서'의 주인공이었던 김두현 형제의 아내, 송지연 자매의 간증을 이곳에 실는다

## 서울 동 스테이크 송지연 자매

**영** 어 회화를 통해 자매 선교사님들과 만났다. 계속 만나면서, 순수한 인간미를 지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차 있는 선교사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당시 성당에 다니고 있었고 침례 권유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선교사님들은 교회 참석이나 침례를 더는 권유하지 않았다.

어느 저녁,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며 혼자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자매님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이 집에는 행복이 여기저기 쌓여 있는 것 같아요.”라던 선교사님들의 말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리고 내 기억은 4년 전 고향을 떠나오던 때로 거슬러 올라갔다.

나의 고향은 우리 한반도의 반쪽, 북한이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다. 결혼 2년 차가 될 무렵, 남편은 출장을 다녀온다고 집을 나선 뒤 감쪽같이 사라졌다. 남편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매일을 눈물로 보냈다.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나가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심정이었다.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 나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낯선 이의 목소리가 내 남편의 이름을 말했던 것이다. 그가 알려 준 장소로 나는 한달음에 달려갔다. 어둠이 깃들기 시작한 약속 장소에서, 멀리 마주보고 있던 한 낯선 남자가 내 쪽으로 걸어왔다.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는 몰래 내 손에 종이 쪽지를 건네주고는 아무말 없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종이 쪽지에는 해외 전화 번호로 보이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국제 전화를 한 사실조차 들키면 중범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를 확인하는 순간, 온 몸에 힘이 순간적으로 쭉 빠지며 서있을 기운도 없었다. 이제는 죽어도 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내 남편의 목소리였다. 그가 지구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있다!

아무말도 할 수 없어 한동안 울기만 했다. 그런 나를 기다리던 남편은 나직히 말했다. “지연아,

오빠한테 올 거지?”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에,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남편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추호의 망설임 없이 무조건 가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며칠 동안 고향에서의 생활을 정리하며 떠날 준비를 했고 국경으로 갔다. 죽더라도 남편을 찾아가는 길에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국경을 넘어가기 위해 어설픈 얼어있던 강을 건넜다. 한 걸음씩 내딛을 때마다 얼음 깨지는 소리가 마치 총알 소리처럼 내 귀를 때렸다. 걸음을 땀 때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겨우 국경을 지나 중국땅을 밟았을 때, 2미터 높이의 철책이 또다시 나를 가로막았다. 그런데 철책을 확인한 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 새 철책 너머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 무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는 초인적인 힘으로 철책을 넘었던 것이다. 그때 어떻게 그 높이의 철책을 넘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없다.

고향을 떠나왔던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친 뒤, 나는 자매 선교사님들을 다시 떠올렸다. 나는 지금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한다. 대한민국에 와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떤 이는 국경을 넘다가 감옥에 끌려가고, 누군가는 내가 건넌 그 강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선교사님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 무서운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주셨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몰랐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분의 뜻을 따른다면 더 큰 사랑과 행복을 주실 것이다 ...’ 나의 마음이 점차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향했다. 나는 무엇에 이끌리듯 스스로 교회에 참석했다. 내가 찾고자 했던 신앙이 이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내가 침례를 받은 뒤 몇 달 후, 남편도 침례를 받았다.

나는 행복하다. 남편과 함께 있어서, 훌륭한 복음 안에서 부부가 함께 신앙을 키우고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서. 앞으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히 채워질 것을 알고 있기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



왼쪽 사진: 노량진 와드에 전서민 그동인의 후보들.  
오른쪽 사진: 상도 와드 시절 초기 후보 중에 하나(1993년)

# 천 번의 우리 와드 소식

**1992년,** 도트 프린터를  
사용하던 시절,  
당시 감독이던

김용 형제는 상도 와드의 후보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몇몇 와드 지부에서 하듯이, 후보는 성찬식 순서와 임무 지명, 주일 학교와 정원회 모임의 순서, 회원들의 소식이 주 내용이다. 최초 발행인인 김용 형제는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감독이었을 당시, 와드 대회를 기점으로 후보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지나가면 잊힙니다. 후보를 발행하면, 회원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이후에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요.

후보의 표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사진이나 그림을 넣으면 좋을까 영감을 구하곤 했습니다. 와드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넣기도 했고, 노량진 와드 회원들의 가족사진도 넣었지요. 가족 중 일부만 회원인 가정에 방문해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도 나네요. 지금도 볼 때면 당시 생각이 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김용 형제의 뜻을 받들어, 와드의 역대 감독단과 서기들이 그의 노력을 계승해 왔다. 이후 상도, 노량진, 사당 와드가 합쳐져 동작 와드가 되었을 때에도, 시간이 흘러 동작

와드가 신림 와드와 합쳐 지금의 노량진 와드가 된 후에도, 와드 후보는 무려 23년간 지속되어 지난 5월에는 1,000번째 후보를 발행했다.

그동안 발행한 대부분의 후보가 노량진 와드에 보관되어 있다. 성찬식 순서와 주일 학교 임무 지명, 아기자기한 회원들의 소식, 침례식 사진, 가족사진 등 다양한 내용이 후보에 포함된다. 초기 후보에서부터 발행인과 편집인의 이름을 넣는 등 꽤 체계적인 형식도 갖췄다.

지금 노량진 와드 후보의 역사를 약 7년 째 이어가고 있는 김영곤 형제는, 후보의 의미를 설명하며 앞으로의 목표도 나누었다.

“후보를 발행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모임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임무 지명을 받은 사람은 이중으로 체크하게 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후보를 보고 교회 모임 순서나 공과방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편리하고, 교회를 조금이나마 덜 낯설게 느낍니다.

노량진 와드 후보 1,000회를 기념하며, 앞으로는 회원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이 담고 싶습니다. 매주 빠지지 않도록, 또 중단되지 않도록 수많은 선배들이 큰 정성을 들였습니다. 저도 이 정성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

한국 교회 60주년 기념

## 전국 후기 성도 축구 축제

**듣** 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들썩거리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어떤 대답들이 나올까? 그중 한 가지는 단연 ‘축구’가 아닐까?

한국 교회 6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10월 9일, ‘전국 후기 성도 축구 축제’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다. 지역 칠십인의 지도 아래, 선교부 지역별로 지난 4월부터 예선, 대표팀 선발 경기 및 친선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10월 9일 결선에는 각 선교부 지역마다 청소년 팀, 청년 팀, 장년 팀이 각각 두 팀씩 출전하여 신나는 경기를 펼친다. 출전하는 모든 선수뿐 아니라, 모든 자매,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푸짐한 상품도 마련될 예정이다.

예선 및 선발 경기에 대한 사항은 각 스테이크 및 지방부에 문의한다. ■



## 자립을 위한 노력, 천천히, 쉽 없이

**한** 국에 본격적인 자립 지원 사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었다.

지역 칠십인을 정점으로 스테이크 회장과 선교부 회장 및 지방부 회장의 인도하에 진행되는 이 사업은, 천천히, 그렇지만 쉽 없이 전진해 나가고 있다. 스테이크 대부분과 지방부가 12주 과정의 취업/창업/교육 워크숍을 위한 한글판 교재 출판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두 곳에서는 취업과 교육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영문 교재를 활용한 워크숍을 완료했다.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스테이크 자립 위원장과 자립 전문가가 손수 ‘더 나은 일을 위한 교육 워크숍(또는 ‘교육 워크숍’)을 진행하여, 다섯 명의 청년들이 이 워크숍을 수료했다.

한편, 교회 자립 지원부에서 직접 주관한 ‘직업 찾기 워크숍(또는 ‘취업 워크숍’)이 신촌 와드에서 3개월간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네 명의 청년이 이 과정을 수료했다.

이 워크숍에 참석한 청년들은 유익한 배움을 많이

얻었으며, 가능한 한 모든 회원이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12주 과정 워크숍 교재들이 번역 출판되는 대로, 이러한 노력은 모든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매 2명 / 장로 11명



**권정현 장로**  
창원 스테이크  
마산 와드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북 선교부



**김민성 장로**  
서울 서 스테이크  
인천1 와드  
대전 선교부



**김태오 장로**  
대구 스테이크  
중리 와드  
뉴저지 모리스타운  
선교부



**송지수 장로**  
동 스테이크  
장위 와드  
부산 선교부



**우준하 장로**  
서울 서 스테이크  
목동 와드  
대전 선교부



**이사랑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강남 와드  
부산 선교부



**이수영 장로**  
서울 스테이크  
녹번 와드  
워싱턴 터코마  
선교부



**이순호 장로**  
서울 스테이크  
금촌 와드  
부산 선교부



**이재복 장로**  
안양 스테이크  
금천1 와드  
부산 선교부



**이종훈 자매**  
서울 서 스테이크  
청라 와드  
뉴저지 모리스타운  
선교부



**전동국 장로**  
영동 스테이크  
송파 와드  
뉴저지 모리스타운  
선교부



**정태유 장로**  
청주 스테이크  
예성 와드  
캘리포니아  
산페르난도 선교부



**하민수 장로**  
서울 스테이크  
일산 와드  
대전 선교부

후기성도 SNS 서포터즈

## 바로알리미 2기 모집

**@지난 1기 성과**

- > 총 12명의 청년(가운) 회원 참여
- > 교회관련 검색결과 15% 이상 긍정적으로 변화
- > 소셜미디어 엑스포 진행
- > 회원 운영 블로그 및 SNS 채널 활성화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회원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선교사업 및 홍보활동에 관심있는 누구나

**#활동 내용**

월 1회 모임  
발대식 이후 SNS 활용 방법 배우기 / 실습 / 공개활동

**#지원 방법**

교회 홈페이지 (lds.or.kr) 최신 소식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유선 문의**

e-mail : moregoodlds@naver.com / 카카오톡 : @값진진주상자 친구추가

후기 성도 SNS 서포터즈

## 바로알리미 2기 모집 안내

# 후기 성도 바로 알리미란?

- 후기 성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 긍정적인 뉴스를 소셜미디어, SNS 등을 활용하여 작성·공유하는 자원 봉사 소셜 리포터를 말합니다.

- 1.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회원.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선교 사업 및 홍보 활동에 관심 있는 누구나
- 2. 활동 내용:** 월 1회 모임, 발대식 이후 SNS 활용 방법 배우기 / 실습 / 공개 활동
- 3. 지원 방법:** 교회 홈페이지(lds.or.kr) 최신 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유선 문의:** E-mail: moregoodlds@naver.com / 카카오톡: @값진진주상자 친구 추가